산업통상자원부 공동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4.(목) 11:00 배포 2025. 7. 24.(목)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7.23.(수)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었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은 2025.7.22.(화)-23.(수)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consensus)가 형성되었음을 공지하였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되었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2023.3월부터 2025.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WTO 가입추진국은 우즈베키스탄 포함 총 22개국(2025.7월 기준)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 등 WTO 가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영 前 제네바 대사)를 구성하여 2018년부터 자문, 연구, 교육 등 WTO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예측가능한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의장직 수임은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과	책임자	과 장	이동구 (02-2100-7652)
		담당자	전문관	정영철 (02-2100-7656)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세나 (044-203-5930)
		담당자	사무관	임경숙 (044-203-59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